

HOME > 사회/문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에 앞장

☞ 최형순 기자 | Ⓞ 승인 2021.06.29 22:27

’21년 운영대의원회를 통한 지역현안 및 농민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29일 ’21년 상반기 지사 운영대의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항 및 농민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표 청양지사장 운영대의원회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청양지사는 반기별 운영대의원 정기회의를 통해 각 읍면별 현안사항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



농어촌공사 청양지사, '21년 상반기 지사 운영대의원회

김남표 지사장은“청양지사 관내 지역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운영대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사업현장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



HOME > 경제/사회

농어촌공사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7.05 15:49 | 호수 1402

효율적 시설관리로 농작물 피해 예방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지난달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를 갖고 지역현안사항 및 농업인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청양지사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지사는 1년에 두 차례 운영대의원 회의를 열고 각 읍면별 현안사항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받고 있다. 회의를 통해 건의된 내용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남표 지사장은 "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신규 사업 추진시 이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용수관리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관용 기자